

사서의 문헌정보학분야 학술논문 출판 활동 현황

- 『한국비블리아학회지』를 중심으로 -

Librarians' Contribution for Publishing in LIS Journal: In the case of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신 은 자 (Eun-Ja Shin)*

초 록

실용성을 강조하는 여타 학문 분야처럼 문헌정보학은 실무자인 사서의 연구 활동과 학술논문 출판에 관심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접 다룬 국내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 연구는 사서의 국내 학술논문 출판 데이터를 수집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사서의 학술논문 출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에 수록된 사서 저자의 논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고, 출판한 사서의 특성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학술지 저자 전체에서 사서의 비중은 15.56%로 높지 않았다. 다만 사서 저자의 논문수 추이가 안정세였고, 공저 논문 가운데 사서가 주저자인 경우가 많다는 점은 고무적이었다. 활발한 출판을 보이는 사서는 공공 도서관과 학교 도서관 사서였고, 대학 도서관 사서는 다소 뒤져 있었으며, 지도교수와 공저하는 대학원 재학 사서도 있었다. 사서의 학술논문 출판을 활성화하는 데는 사서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소속 기관의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사서와 도서관 모두 학술논문 출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업무 시간의 탄력 적용, 보상, 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실천함으로써, 사서의 귀중한 실무 경험이 학술논문으로 출판되고 이를 타 연구자 및 사서가 용이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addition to emphasizing practicality, as in some academic disciplines, LIS is also interested in the research activities and journal publishing of librarians. Despite the high interest, there are few Korean studies on librarian authors' publishing.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status of librarians' publishing and finding ways to activate their journal publishing. This study analyzed the papers of the librarian authors published from 2014 to 2018 in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nd identified the characteristics of librarians who are publishing. As a result, librarians accounted for 15.56% of all authors. However, it is encouraging that the number of librarians' authorship stabilized, and that many librarians are the main authors. Librarians who were energetically publishing were public or school librarians, and academic librarians were slightly behind. There were graduate student librarians who collaborated with the advisor. In order to increase the librarian's publishing, it seemed to be necessary to improve not only the librarian's efforts but also the recognition and assistance of his/her library. Both the librarian and his/her library should be aware of the importance of publishing the journals, and should establish concrete plans such as resilience, compensation, and support. In this way, the librarian's valuable practical experience will be published in research papers and widely shared among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키워드: 학술논문, 출판, 사서, 문헌정보학, 공동연구

Article, Publishing, Librari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ollaboration

* 세종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ejshin@sejong.ac.kr)

논문접수일자 : 2019년 11월 18일 논문심사일자 : 2019년 12월 4일 게재확정일자 : 2019년 12월 9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0(4): 51-64, 2019.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9.30.4.051>

1. 서론

사서가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좋은 연구문제를 발견하고 연구를 거듭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내며 업무에도 적용하고 학술논문으로도 출판하여 공유한다면, 도서관계나 학계 모두에게 매우 유익할 것이다. 또한 사서의 학술논문 출판은 저자와 소속 도서관의 인지도를 높여주고, 도서관과 사서직에 관한 인식도 좋아지게 하는 등 수반되는 부수 효과도 작지 않을 것이다(Wilkinson 2013). 이런 이유로 해외에서는 학술논문 출판은 사서가 하는 여러 업무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는 수준까지 도달하였으나, 국내의 경우 이러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내는 사서의 학술논문 출판 사례도 많지 않고, 더불어 사서의 학술논문 출판에 관한 조사, 분석, 발표도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서의 연구와 학술논문 출판이 중요한 이슈라는 점은 국내 도서관계나 문헌정보학계 공히 인정하는 바일 것이다. 사서의 학문적 배경인 문헌정보학이 도서관 현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도서관 현장에서 나온 연구결과 및 학술논문은 문헌정보학의 주요 자원이며 근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이 연구는 국내 사서의 연구 및 학술논문 출판에 연구관심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사서 저자의 단독 논문은 물론이고 공저 논문도 상세히 분석한 후, 연구 및 출판이 활발한 사서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사서의 연구 및 출판을 활성화시킬 정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사서의 학술논문 출판은 일상적인 도서관 안팎 문제에 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거나, 이용

자 서비스 향상을 불러오거나, 나아가 문헌정보학 이론의 한계나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사서직이 전문직의 속성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이 된다는 면에서 가치가 있을 것이다. 해외에서는 사서의 학술논문 출판이 일상의 과제 또는 업무로 받아들여진 지 이미 오래되었고, 대학도서관에서는 이것이 사서의 승진요건 중 하나라는 사실도 수차례 보고된 바 있다(Hoggan 2003; Welch and Mozenter 2006; Wiberley, Hurd, and Weller 2006; Wilkinson 2013; Silva, Galbraith, and Groesbeck 2017; Borrego, Ardanuy, and Urbano 2018). 반면에 국내는 사서의 학술논문 출판을 장려하거나, 이를 승진요건으로 정한 대학도서관이 존재하는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현실을 배경으로 이 연구는 사서의 국내 학술논문 출판에 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현황을 분석한 후 이를 기반으로 사서의 학술논문 출판 활성화 정책에 관한 기초를 모색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 분석, 해결방안 모색을 통해 도서관의 서비스 향상, 전문직 사서의 위상 제고, 나아가 문헌정보학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데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1.1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사서의 국내 학술논문 출판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현황 분석을 시도하였다. 서은경 등(2015)은 국내 문헌정보학 학술지 수록논문의 제1저자를 수집하여 사서가 차지한 비중을 분석한 바 있고, 그 결과 정보관리학회

지 0.4%,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8%, 한국비블리아학회지 8.7% 등인 점을 들어 한국비블리아학회지가 사서의 논문출판이 상대적으로 활발하다고 보고하였다. 이 같은 사실을 참조하여 이 연구는 분석대상 학술지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를 선정하였다.

한국비블리아학회지는 1972년 창간된 이후 2008년까지 연 1~3회 출판되었고, 2009년부터는 연 4회 출판 중에 있다. 이 학술지를 발간하는 한국비블리아학회는 문헌정보학 전반에 걸친 연구 및 교류를 통해 학문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아울러 특정 주제에 관한 기획출판을 통해 독자에게 보다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정책을 갖고 있다. 현재 이 학회는 개인 550명, 단체 40곳의 회원을 갖고 있고,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도 수행 중에 있다 (<https://kbiblia.jams.or.kr/co/main/jmMain.kci>).

이 연구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출판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논문 280편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서은경 등(2015)이 이미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한 바 있기에, 이 연구는 가능한 이들의 데이터와 중복되지 않으면서 최근 기간으로 데이터 수집 기간을 정하였다. 실제 논문에 명기된 저자의 소속과 직책을 참조하여 사서의 논문을 빠짐없이 추출하였다. 저자의 직책이 학교, 공공, 대학 도서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서인 경우 우선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아울러 사서라는 명칭을 직접 기재하지 않고 저자의 소속을 도서관 또는 자료실로 밝힌 경우 해당 도서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사서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 연구는 공저 논문에서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 주저자로, 나머지 저자는 공동저자로 간주해 집계하였다. 동일 도서관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동일 캠퍼스내에서의 협업도 동일 기관내 공저 논문으로 판단하였다. 즉, 동일 대학의 교수와 사서 공저의 경우 동일 기관내 공저로 집계하였다. 단 저자수에 따라 적용기준은 달리 하였다. 예를 들어 2인 공저는 두 저자 모두 동일 기관인 경우 기관내 공저로, 3인 이상 공저는 저자의 과반수가 동일 기관인 경우 기관내 공저로 집계하였다.

논문을 주제별로 분류하는데 있어 이 연구는 서은경 등(2015)의 주제 분류 기준을 수용하였다. 이들은 도서관학, 정보학, 계량정보학, 서지학, 기록관리학 등 다섯 영역의 대주제로 나눈 후, 모두 15개 세부 주제로 나누었다. 이 연구는 수집된 논문의 제목, 초록, 키워드에 기반하여, 서은경 등(2015)이 제시한 다섯 영역의 대주제로 사서 논문의 주제 분류를 실시하였다. 객관성 확보를 위해 주제 분류는 문헌정보학 박사 1인, 문헌정보학 석사 1인이 각각 분류를 수행하였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이 연구의 연구자가 최종 판단하였다.

이상의 기준과 절차로 수집된 논문 280편을 분석한 결과, 사서가 저자로 포함된 논문은 모두 41편이었고, 이는 전체 논문의 14.64%에 해당하였다. 그리고 이들 41편의 논문 작성에 저자로 참여한 사서는 모두 42명인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수집된 데이터에 관하여 사서의 논문 출판 현황, 출판한 사서의 특성 등을 기술통계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국내외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해석과 제안을 수행하였다.

2. 선행 연구 및 연구문제

2.1 선행 연구

문헌정보학 분야 공동연구는 국내외 모두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강미희와 김정현(2014)은 1974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에 수록된 논문 1,365편을 조사한 바 있다. 이들에 의하면 공저 논문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74년부터 1978년까지 3.6%에 불과했으나, 2009년부터 2013년에는 29.8%로 크게 증가하였다. 2인 공저 논문의 비율도 3.6%에서 21.2%로 크게 증가하였다. 아울러 다른 국내 학술지 공저 논문 비율은 50% 내외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은경 등(2015)의 연구에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공저 논문의 비율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1%, 정보관리학회지 53.0%, 한국비블리아학회지 49.3% 등이었다. 다만 공동 저자 가운데 사서가 차지하는 비율은 학술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고, 한국비블리아학회지가 8.7%로 다른 두 학술지에 비해 높았다.

문헌정보학 학술논문 가운데 사서의 논문을 분석한 선행 연구도 있었다. 표순희(2010)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관리연구 등 5종의 학술지 가운데 저자에 사서가 포함된 논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저자 가운데 사서 및 직원은 전체의 26.0%였고, 이 중 이들이 제1저자인 것은 전체 논문의 23.3%였다. 사서 및 직원이면서 단독으로 논문을 출판한 경우 대학도서관 소속 저자는 36.4%로 가장 많았고, 기관 및 연구소 32.7%, 학교도서관

23.6%, 기업체 및 기타 3.6% 등의 순이었다.

한편 문헌정보학 분야 단독 및 공저 논문에 관한 해외의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70년대와 80년대에는 단독이 공저 논문의 비중을 크게 상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Frandsen와 Nicolaisen(2010)은 1978년부터 2007년까지 정보학 분야 학술지 12종에 실린 단독 또는 공저 논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978년에는 단독 64%, 2인 27%, 3인 8%였으나, 2007년에는 단독 33%, 2인 31%, 3인 23%라고 보고하였다. 이로써 70년대말 정보학 논문은 단독 저자 논문이 많았으나, 시대가 바뀌면서 공저 논문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Buttlar(1991)는 1987년부터 1989년까지 문헌정보학 주요 학술지 16종에 실린 논문 1,725편을 분석하였다. 그에 의하면 단독 논문은 1,045편으로 전체의 60.58%였고, 2인 공저 375편 21.74%여서, 단독 또는 2인 공저 논문이 전체의 82.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Frandsen과 Nicolaisen(2010)의 1970년대 출판된 학술지 논문을 분석한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볼 수 있다. 계속해서 그는 저자 2,017명의 소속과 신분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교수 18.69%, 대학 및 공공 도서관 사서 11.95%, 대학도서관장 9.27% 등의 순이었다. 저자 가운데 사서 저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데 대하여, 그는 연구논문이 아닌 기사를 다수 수록한 학술지도 분석에 포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School Library Media Quarterly*, *Public Library Quarterly & Special Libraries*가 바로 그것이다.

Chang(2015)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문헌정보학 오픈액세스 학술지 19종에 실린 논문

1,819편을 분석하였다. 이 가운데 9종은 연구 중심, 10종은 실무 지향 학술지라고 그는 덧붙였다. 분석결과 단독은 전체의 46.3%, 공저는 53.7%였다. 2인 공저는 전체 논문의 31.9%, 3인 공저는 전체 논문의 14.4%였다. 단독 논문이 전체의 절반에 가깝지만 이는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였고, 반면에 2인과 3인 공저 논문은 증가세를 보였다는 것이 그의 부연 설명이었다. 그의 분석에서는 공저 논문의 21.7%가 사서간 공저, 사서와 연구자간 공저 12.3%, 연구자와 연구자간 공저 9.1% 등이었다. 또한 저자의 절반이 넘는 55.6%가 사서였고, 33.5%가 연구자였다.

한편 Wiberley, Hurd, Weller(2006)는 대학 도서관 사서의 논문을 집중 분석한 결과를 발표해 학계의 주목을 끌었다. 이들은 문헌정보학 학술지 32종에 대하여 사서 논문의 비중, 단독 및 공저 분포, 출판이 왕성한 사서의 소속 도서관 유형, 논문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근무 여건 등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출판된 논문 가운데 사서가 저자인 논문은 전체의 39.56%였고, 전체 저자의 34.33%가 사서였다. 그렇지만 학술지에 따라 사서 저자의 비중은 크게 달랐다. 사서 저자가 0%인 경우도 있는가 하면 87%인 경우도 있었다. 대체로 사서 1인당 논문수는 많지 않았지만 매우 높은 생산성을 보인 사서도 있었다. 약 80%의 사서 저자가 논문 1편을 출판하였으나, 많게는 10편을 출판한 사서도 있었다. 한 명 이상 사서가 포함된 공저 논문은 전체 공저 논문의 41.09%였다. 동일 기관 공저 65.10%, 타기관 공저 34.93%였고, 특히 공저 가운데 21.57%는 타대학 교수와의 공저였다. 논문 출판이 가장 활발한 도서관 20곳에 근무

하는 사서가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논문을 작성하였고, 이들이 출판한 논문은 대학도서관 사서가 쓴 논문 전체의 1/3에 해당하였다. 특히 상위 8개 대학도서관은 전체 논문의 7%에 해당되는 논문을 출판하였을 정도로 논문 출판의 쏠림 현상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 저자가 출판한 논문의 주제도 관심 가는 부분일 것이다. 국내의 경우 논문의 주제는 시대에 따라 차이가 나고, 시점에 따라 특정 주제에 쏠리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가 많았다(손정표 2003; 오세훈, 이두영 2005; 정재영, 박진희 2011; 박자현, 송민 2013; 강미희, 김정현 2014; 서은경, 이원경, 박은경, 이옥성 2015; 최형욱, 최예진, 남소연 2018). 반면 서은경 등(2015)에 의하면 한국비블리아학회지는 주요 다섯 영역에 치우침 없이 골고루 논문을 출판하는 경향이 있었다. 정보서비스 17.3%, 운영 및 평가 14.3%, 독서교육 11.3%, 정보정책 및 이슈 10.3%, 정보이용 및 행태 10.3% 등이었다. 한국비블리아학회지는 이론 연구 보다는 도서관 관련 정책 및 현안, 이슈와 쟁점을 다룬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아, 이에 관심있는 사서라면 이 학술지가 논문을 출판하기에 적합할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아울러 다른 학술지에 비해 도서관경영, 도서관정책, 독서교육 등에 관한 연구가 많고, 공공, 대학, 학교 도서관 등 관중별 실용적 연구도 많다고 이들은 덧붙였다(서은경 외 2015).

2.2 연구문제

이 연구는 사서의 국내 학술논문 출판 현황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로 사서의 출판 활성화를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사서의 국내 학술논문 출판 현황은 어떠한가? 사서는 얼마나 많은 논문을 출판하고 있고, 전체 저자 가운데 사서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연도가 경과함에 따라 사서의 논문수와 사서 저자의 수도 변화가 있는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서는 단독과 공저 가운데 어떤 형태의 논문을 주로 출판하며, 어떤 저자와 자주 공저하는지도 궁금한 대목이다. 또한 사서는 어떤 주제의 논문을 주로 출판하는가도 사서의 관심 영역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학술논문을 출판하는 사서의 특성은 무엇인가? 사서 중에서도 출판에 관심이 많은 사서와 그렇지 않은 사서가 있을 것이다. 출판하는 사서의 특성을 관찰하다 보면 사서가 학술논문에 관심을 갖는 이유를 파악할 수도 있다. 즉, 사서 저자의 소속 기관과 주변 여건을 살펴보는 것 외에 출판에 관심이 많은 사서의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려는 시도도 필요해 보인다.

셋째, 사서의 학술논문 출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직간접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사서는 많은 시간을 직장인 도서관에서 일상 업무를 하는데 소요한다. 따라서 소속 도서관이나 기관이 별도로 요청 또는 보상을 하지 않는 한, 추가적으로 시간을 들여 학술논문 출판을 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추구하고, 사서 스스로도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모색한 해결 방안을 널리 전파하고 공유하는 차원에서 학술논문 출판을 장려하는 직장 분위기가 있지 않은 한 사서의 논문 출판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서 개인 차원에서 연구 호기심을 갖고, 연구에 매진하며, 연구결과를 학술논문으로 출판하는 일은 흔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학술논문 출판을 장려하는 도서관 및 기관이 있는가, 그리고 학술논문 출판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사서가 바로 이런 곳에 재직하고 있는가를 면밀히 살펴보면, 사서의 학술논문 출판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연구의 결과

3.1 사서의 논문출판 현황

최근 5년간 한국비블리아학회지의 전반적인 출판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는 연간 최소 51편부터 최대 58편, 연평균 56편의 논문을 출판하였다. <표 2>는 최근 5년간 한국비블리아학회지의 저자수 기준 논문수이다. 저자가 1인인 단독 논문은 2014년 26편, 2018년 12편으로 연도에 따라 차이가 컸고 연도가 경과하

<표 1> 한국비블리아학회지의 연도별 논문수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연간평균
편수	58	55	51	58	58	280	56

〈표 2〉 한국비블리아학회지의 저자수 기준 연도별 논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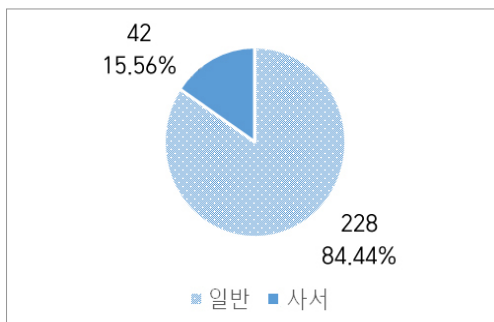
연도 저자수	2014	2015	2016	2017	2018	소계	%
1	26	22	24	17	12	101	36.07
2	21	24	17	27	29	118	42.14
3	8	4	4	7	12	35	12.5
4	3	4	5	5	4	21	7.5
5	0	1	1	2	1	5	1.79
합계	58	55	51	58	58	280	100.00

며 감소세를 보였다. 5년 전체를 보았을 때 단독 연구는 전체의 36.07%였고, 나머지 63.93%는 공저 논문이었다. 즉, 단독 보다 공저가 많고, 특히 2인 공저가 전체의 42.14%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단독 또는 2인 공저 논문이 전체의 78.21%로 전체의 3/4을 초과하였다. 〈그림 1〉을 보면 전체 270명의 저자 가운데 사서는 42명으로 전체 저자의 15.56%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표 3〉은 연도별 사서의 논문수로 2014년 6편에서 2018년 8편으로 연도가 경과하며 눈에 띄는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서 1인 참여 논문은 전체의 4.88%, 사서 2인 참여 논문은 전체의 82.93%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면

에 사서가 5인 이상 참여한 논문은 1편에 불과하였다. 저자의 역할에 따른 사서 저자의 논문 분포는 〈표 4〉와 같다. 단독, 제1저자, 교신저자 등을 주저자로 보았을 때, 2014년 사서가 주저자인 논문은 5편, 사서가 공동저자인 논문은 1편이었고, 2018년은 주저자 6편, 공동저자 2편으로 집계되었다. 결과적으로 5년 동안 사서가 주저자인 논문은 모두 33편으로 전체의 80.49%였다. 이 가운데 사서가 단독 저자인 논문은 모두 2편으로 전체의 4.88%에 해당하였다. 〈표 5〉는 사서와 공저한 연구자는 누구인가를 보여준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주체는 교수로, 사서와 교수의 공저는 36편, 전체의 87.80%에 달하였다. 반면에 사서간 공저는 3편, 전체의 7.32%에 불과하였다.

사서가 출판하는 논문의 주제별 분포는 〈표 6〉과 같다. 가장 활발하게 출판된 주제는 전통적인 도서관학 분야로 모두 31편, 전체의 75.61%였다. 특히 도서관 운영 및 평가가 14편으로 전체의 34.14%를 차지하였다. 이어 정보서비스 8편, 독서교육 5편 등의 순이었다. 반면에 정보학은 모두 7편으로 전체의 17.07%였다. 이 가운데 정보이용과 정보시스템은 각각 3편으로 다소 높은 비중이었다. 반면에 계량정보학은 0편으로 전혀 출판되지 않았다.



〈그림 1〉 한국비블리아학회지의 사서 저자 분포

〈표 3〉 사서 저자의 연도별 논문수

연도 사서수	2014	2015	2016	2017	2018	소계	%
1		1	1			2	4.88
2	5	8	6	8	7	34	82.93
3	1		2	1		4	9.75
4						0	0.00
5					1	1	2.44
합계	6	9	9	9	8	41	100.00

〈표 4〉 저자 역할 기준 사서 저자의 연도별 논문수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소계	%
주저자(단독)	5	8(1)	7(1)	7	6	33(2)	80.49(4.88)
공동저자	1	1	2	2	2	8	19.51
합계	6	9	9	9	8	41	100.00

〈표 5〉 사서 저자의 단독 및 공저 논문수

구분	사서 단독	공동연구			합계
		사서+교수	사서 공동	소계	
편수	2	36	3	39	41
%	4.88	87.80	7.32	95.12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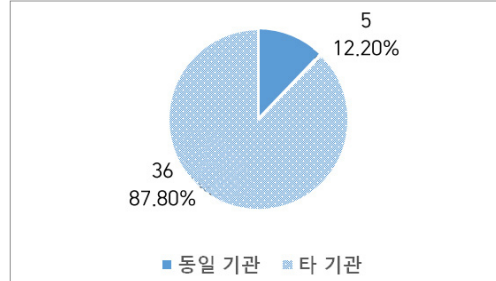
〈표 6〉 사서 저자의 주제별 논문수 분포

영역	세부주제	논문수	%	소계(%)
도서관학	이론	0	0.00	31(75.61)
	장서관리	2	4.88	
	정보조직	0	0.00	
	정보서비스	8	19.51	
	도서관 운영 및 평가	14	34.14	
	독서교육	5	12.20	
	정보정책	2	4.88	
정보학	메타데이터	0	0.00	7(17.07)
	정보이용	3	7.32	
	정보처리	1	2.44	
	정보시스템	3	7.32	
	시스템평가	0	0.00	
계량정보학		0	0.00	0
서지학		1	2.44	1(2.44)
기록관리학		2	4.88	2(4.88)
합계		41	100.00	41(100.00)

3.2 논문 출판 사서의 특성

한국비블리아학회지에 논문을 출판한 사서의 소속은 <표 7>과 같다. 사서 가운데 공공도서관 사서가 16명으로 전체의 38.10%의 분포로 많았다. 이어 학교도서관 사서가 14명으로 33.33%였고, 대학도서관 사서는 9명으로 21.43%의 분포였다. 결과적으로 이들 공공, 대학, 학교도서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서가 전체 사서 저자의 90% 넘게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사서와 공저하는 연구자는 주로 타기관 소속인 경우가 많았다. <그림 2>를 보면 동일 기관 내 공저 논문은 5편인데 반해, 타 기관 공저논문은 36편으로 사서 공저 논문 전체의 87.80%에 해당하였다. 개인별 사서 논문의 생산성을 보면 사서 저자 모두가 1편의 논문을 출판하였고, 2편 이상의 다수 논문을 쓴 사서는 없었다.



<그림 2> 사서 공저자의 재직기관 유형별 논문수

<표 8>과 같이 42명의 사서 가운데 34명은 각각 다른 도서관에 재직 중이었다. 반면에 국립중앙도서관은 사서 저자가 4명으로 전체 사서 저자의 9.52%에 해당하였다. 뒤이어 제천기적의 도서관 2명, 성균관대 학술정보관 2명이 학술논문을 출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저자의 소속, 직책을 밝힐 때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임을 병기하기도 하였고, 실제 5명의 사서에게 해당되었다.

<표 7> 사서의 소속 현황

구분	공공	대학	학교	연구소	특수	단체	기타	합계
저자수	16	9	14	0	1	1	1	42
%	38.10	21.43	33.33	0.00	2.38	2.38	2.38	100.00

<표 8> 사서의 학술논문 출판이 활발한 도서관 및 대학원

도서관명	저자수	%
국립중앙도서관	4	9.52
제천기적의 도서관	2	4.76
성균관대 학술정보관	2	4.76
기타 도서관	34	80.96
전체	42	100.00
대학원명*		
공주대학교 대학원	3	
중앙대학교 대학원	2	

* 사서가 대학원 재학중임을 밝힌 경우임. 중복이므로 %는 산출하지 않음

3.3 논의

이 연구에서 관심을 두었던 첫번째 연구문제인 사서의 국내 학술논문 출판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서의 논문 출력이 활발하다고 알려진 한국비블리아학회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서 저자의 논문 비중은 기대한 만큼 크지 않았다. 분석대상 논문 280편 가운데 사서 저자의 논문은 41편으로 전체 논문의 14.64%였고, 전체 저자 270명 가운데 사서는 42명으로 전체 저자의 15.56%에 해당하였다(〈그림 1〉 참조). 이는 표순희(2010)가 국내 문헌정보학 학술지 5종 분석에서 사서 및 직원이 전체 저자의 26.0%라고 한 것 보다 다소 낮았다. 이 연구결과는 사서와 도서관장의 비중이 전체 저자의 21.22%라고 발표한 Buttlar(1991) 연구결과와도 차이가 있었다. 나아가 사서의 비중이 34.33%라고 한 Wiberley, Hurd, Weller(2006)의 연구결과에는 더더욱 못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결과 2014년 사서 논문수가 6편이던 것이 2018년 8편으로 사서의 논문수가 감소하지 않고 다소 증가한 것은 다행이었다(〈표 3〉 참조). 또한 사서가 주저자인 논문이 사서 논문 전체의 80.49%라는 것도 사서가 공동 연구에서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표 4〉 참조). 반면에 사서간 공저는 사서 논문 전체의 7.32%에 불과하고, 대신에 사서와 교수의 공저는 87.80%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도 확인되었다(〈표 5〉 참조). 후자와 같은 공동 연구라면 저자 중 교수는 학문의 근간을 이루는 이론을, 사서는 실무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연구논문에 담

을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결과 사서의 단독 논문은 2편에 불과하고 나머지 39편이 공저 논문이라는 사실도 눈길을 끌었다(〈표 5〉 참조). 이 부분에서는 사서의 학술논문 출판 전략으로 공저가 바람직하다는 선행 연구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Hart(2000)는 공저를 통해 저자 간의 새로운 아이디어 도출, 전문지식 공유, 추가 출판 가능성 증진 등을 꾀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경험 많은 동료와의 공저는 연구 역량을 키우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예컨대 중간 경력자와 초보 사서간 공저는 박사과정 대학원생과 지도교수와의 관계처럼 장점은 부각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데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 연구문제인 논문을 출판하는 사서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사서 저자가 공공, 학교, 대학 도서관 소속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공공 도서관 38.10%, 학교 도서관 33.33%, 대학 도서관 21.43% 등으로 사서 저자 전체의 92.86%가 이들 도서관 소속이었다(〈표 7〉 참조). 이 같은 연구결과는 사서의 논문 출력이 대학, 연구소, 학교 도서관 등의 순으로 활발하다는 표순희(2010)의 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 연구결과 사서와 공저하는 저자가 타기관 소속인 경우가 전체의 87.80%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그림 2〉 참조). 이와 같은 수치가 나타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일례로 이 연구는 저자의 소속을 카운트할 때 재직하고 있는 도서관을 기준으로 하였다. 즉, 대학원에 재학중인 현직 사서가 지도교수와 공저한 경우 사서의 소속 직장으로 분류하였고 결과적으로 타기관 협업으로 집계

된 것이다. 현직 사서이면서 대학원 재학중임을 적시한 저자는 5명에 불과했지만, 재직 도서관만 표기하고 대학원 재학 중임을 밝히지 않은 저자도 얼마간 있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대학원생이거나 졸업생으로서 지도교수와 공저하는 사서는 밖으로 드러난 숫자보다 더 많을 것이란 예상도 가능하다. 현직 사서의 대학원 진학을 공식적으로 불허하는 도서관에 재직중이라면 더욱 재학 사실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번째 연구문제는 사서의 논문 출판 활성화 정책은 다양한 측면에서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의 일상 업무에서 좋은 연구문제를 발견해, 이의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이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사서 개인뿐 아니라 소속 도서관 서비스 향상에도 응용할 수 있어 좋을 것이다. 다만 사서가 일상 업무를 하면서, 연구에 할애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사서 혼자 노력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 대학도서관 사서가 연구에 할애하는 시간은 전체 업무시간의 12~15%라는 보고도 있는 만큼(Brown 2001; Fox 2007), 국내도 이 같은 연구시간 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서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전체적으로 사서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이를 위해서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도서관 차원에서 탄력근무를 허용하거나, 동료사이에 순번을 정해 잔무를 분담하거나, 캐나다의 LRI(Librarians' Research Institute)처럼 출판 경험이 많은 사서가 멘토가 되어 연구 및 출판을 이끌어 시간 낭비를 최대한 줄이는 것도 방법

일 수 있다. LRI는 2012년 처음 등장한 이후 사서간 교류, 연계, 공유를 도모함으로써 사서의 연구와 출판을 돕는 연구공동체로 현재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이기 때문이다(Jacob and Berg, 2013).

4. 결론

이 연구는 한국비블리아학회지 논문을 대상으로 사서의 논문 출판 현황, 사서 저자의 특성 등을 분석하였고, 사서의 논문 출판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과 노력을 통해 이 연구는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서가 전체 저자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5.56%여서 그리 높지 않았으나, 이들 사서가 공동연구에서 맡은 역할은 주저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사서가 저자인 논문 중 사서가 단독, 제1, 교신 저자인 논문은 전체의 80.49%로 확인되었다. 이로써 많은 수의 사서가 논문 출판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일단 참여하면 논문 출판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사서는 재학중인 대학원 지도교수와 공저한다는 사실이 일부 확인되었고, 대학원 지도교수와의 협업 논문은 사실상 더 많을 가능성도 다분해 보인다. 다만 해외와 달리 국내는 사서의 학술논문 출판에 관하여 관심을 보이거나 지원을 하는 도서관이 있다는 것이 선행연구 리뷰와 인터넷 검색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관중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국내의

경우 사서의 교육/연수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있는 듯하다. 즉, 업무관련 연수, 세미나, 워크숍 등에의 참석은 도서관/기관에서 독려하고 필요 경비를 지원하는 예가 많다. 그렇지만 이러한 단순 교육/연수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일상 업무에서 사서가 연구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를 발전시켜 연구논문을 출판한다면, 도서관/기관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고 대내외에 도서관/기

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기관 차원에서 이들 사서 저자의 공로를 인정하고, 보상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는 사서의 학술논문 출판을 조망하였고, 향후에도 한국비블리아학회지 뿐 아니라 문헌정보학 주요 학술지 각각에 대하여 사서의 논문 출판을 분석한 후속연구가 계속 이어져 사서의 학술논문 출판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 강미희, 김정현. 201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연구동향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4): 457-482.
- 박자현, 송민. 2013.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동향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0(1): 7-32.
- 서은경, 이원경, 박은경, 이옥성. 2015. 계량정보학적 분석을 통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최근 연구동향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3): 315-343.
- 손정표. 2003. 한국의 문헌정보학분야 연구동향 분석: 1957-200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3): 9-32.
- 오세훈, 이두영. 2005. 우리나라의 정보학 연구 동향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2(1): 167-189.
- 정재영, 박진희. 2011. 한국 문헌정보학의 현장연구 현황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2): 171-191.
- 최형욱, 최예진, 남소연. 2018. 문헌정보학 분야의 지적구조 및 연구 동향 변화에 대한 시계열 분석: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정보관리학회지』, 35(2): 89-114.
- 표순희. 2010. 실무자의 근거출판 활성화를 통한 근거중심 문헌정보실무의 국내 적용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3): 219-239.
- 한국비블리아학회. 2019. [online]. [cited 2019.7.1].
 <<https://kbiblia.jams.or.kr/co/main/jmMain.kci>>.
- Borrego, Á., J. Ardanuy, and C. Urbano. 2018. "Librarians as Research Partners: Their Contribution to the Scholarly Endeavour Beyond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e Journal of*

- Academic Librarianship*, 44(5): 663-670.
- Brown, J. M. 2001. "Time and the Academic Librarian." *Portal: Libraries and the Academy*, 1(1): 59-70.
- Buttler, L. 1991. "Analyzing the Library Periodical Literature: Content and Authorship." *College & Research Libraries*, 52(1): 38-53.
- Chang, Y. W. 2015. "Librarians' Contribution to Open Access Journal Publishing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rom the Perspective of Authorship."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41(5): 660-668.
- Fox, D. 2007. "Finding Time for Scholarship: a Survey of Canadian Research University Librarians." *Portal: Libraries and the Academy*, 7(4): 451-462.
- Frandsen, T. F. and J. Nicolaisen. 2010. "What is in a Name? Credit Assignment Practices in Different Disciplines." *Journal of Informetrics*, 4(4): 608-617.
- Hart, R. L. 2000. "Collaborative Publication by University Librarians: an Exploratory Study."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26(2): 94-99.
- Hoggan, D. B. 2003. "Faculty Status for Librarians in Higher Education." *Portal: Libraries and the Academy*, 3(3): 431-445.
- Jacobs, H. L. and S. A. Berg. 2013. "By Librarians, for Librarians: Building a Strengths-based Institute to Develop Librarians' Research Culture in Canadian Academic Libraries."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39(3): 227-231.
- Silva, E., Q. Galbraith, and M. Groesbeck. 2017. "Academic Librarians' Changing Perceptions of Faculty Status and Tenure." *College & Research Libraries*, 78(4): 428-441.
- Welch, J. M. and F. L. Mozenter. 2006. "Loosening the Ties that Bind: Academic Librarians and Tenure." *College & Research Libraries*, 67(2): 164-176.
- Wiberley Jr, S. E., J. M. Hurd, and A. C. Weller. 2006. "Publication Patterns of US Academic Librarians from 1998 to 2002." *College & Research Libraries*, 67(3): 205-216.
- Wilkinson, Z. 2013. "Rock around the (tenure) Clock: Research Strategies for New Academic Librarians." *New Library World*, 114(1/2): 54-66.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i, Hyung Wook, Ye-Jin Choi, and So-Yeon Nam. 2018. "Time Series Analysis of Intellectual Structure and Research Trend Changes in the Fiel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2003 to 2017.”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5(2): 89-114.
- Chung, Jae-Young and Jin-Hee Park. 2011. “Analysis of the Trends in the Field Studie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2): 171-191.
- Kang, Mi-Hee and Jeong-Hyen Kim. 2014. “A Study on Research Trends of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4): 457-482.
-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19. [online]. [cited 2019.7.1]. <<https://kbiblia.jams.or.kr/co/main/jmMain.kci>>.
- Oh, Se-Hoon and Too-Young Lee. 2005. “Research Trends of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2(1): 167-189.
- Park, Ja-Hyun and Min Song. 2013.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in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using Topic Model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0(1): 7-32.
- Pyo, Soon-Hee. 2010. “The Study on the Applying Methods for EBLIP in Korean Librarianship.”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3): 219-239.
- Seo, Eun-Gyoung, Won-Kyung Lee, Eun-Kyung Park, and Ock-Seong Lee. 2015. “Informetric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The Journal of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6(3): 315-343.
- Sohn, Jung-Pyo. 2003.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1957~2002.”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4(3): 9-32.